

군산 숨은 매력 만나다... 시티투어 버스타고 출~발

4개 코스 구석구석 누비며
근대유산·새만금 등 탐방
역사교육·체험여행지 관광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 선사

근대 문화유산의 도시 군산은 봄이면 온 도시가 벚꽃 분홍빛으로 물들고, 여름에는 선유도의 은빛 해수욕장과 고군산군도의 유람길이 피서객으로 북적인다. 가을에는 채만식 문학관과 근대문화유산을 돌아보는 문학·역사의 기행길이, 겨울에는 금강하구의 철새탐조와 철새축제장으로 탐방객들이 몰려든다.

시시시절 색다른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군산, 그 숨은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비법은 바로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다.

시티투어는 테마별로 은파호수공원-새만금코스, 근대문화코스, 고군산군도-새만금코스, 군산과 서천을 연계한 광역시티투어 군산-서천코스 등 4개 코스로 이뤄져 있다. 시티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다.



옛 조선은행



근대역사박물관



고군산군도



새만금 방조제



비봉도 낙조



시티투어 버스



동국사 대웅전

1. 은파호수공원-새만금코스(매주 금요일 운행)

군산 터미널 출발(오전 9시 30분)-군산역(10시)-금강철새조망대-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은파호수공원-새만금산업단지홍보전시관-풍력발전기-새만금방조제-비응항(새만금수산물시장)-군산역(오후 5시 20분)-터미널 도착(오후 5시 40분)

◇금강철새조망대=전국 최초이자 국내 최고의 매머드급 360도 회전식 조망센터로 금강 일대의 철새를 쉽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근대역사박물관=군산 근대문화 및 해양문화를 주제로 하는 특화박물관으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은파호수공원=햇살 받은 물결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은파'라 불

리며, 370m 물빛 다리를 연계한 음악분수가 일품이다.

◇새만금방조제=총 길이 33.9km인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전복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다.

◇비응항(새만금수산물시장)=국내 최초의 워터 프론트 기능을 갖춘 관광어항으로, 새만금종합수산물시장은 종합 수산물 백화점이다.

2. 근대문화코스(매주 토요일 3~11월, 일요일 1~12월 운행)

터미널 출발(9시 30분)-군산역(10시)-(구)입피역-발산리유적지·이영춘가옥·근대역사박물관 일원·신흥동 일본식 가옥·동국사·수산물종합센터(해망동)-채만식문학관-군산역(오후 5시 20분)-터미널 도착(오후 5시 40분)

◇(구)입피역=1920년 12월 1일 영업을 개시해 호남 농산물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중요 교통 역할을 한 수탈의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발산리유적지=일제 강점기 때 타지역 보물급 석조물이 유입된 장소로, 근대 문화답사의 중요한 코스이다.

◇이영춘가옥=일본인 구마모토가 지은 서구식, 일본식, 한식의 절충 양식 건물로, 이영춘 박사 기념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동국사=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일본식 사찰로 아무런 장식도 없는 대웅전 처마 등 일본식 사찰의 특징을 보여준다.

◇수산물종합센터(해망동)=서해안 최대의 수산물센터로 국내산 생선과 건어물, 횃집 등이 들어져 있다.

◇채만식문학관=일제강점기의 세태를 풍자한 '탁류'의 작가 백룡 채만식 선생의 치열한 문학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3. 고군산군도-새만금코스(매주 토요일 4~10월 운행)

터미널 출발(9시 30분)-군산역(10시)-금강철새조망대·고군산군도 선상유람·새만금방조제-군산역(오후 5시 20분)-터미널 도착(오후 5시 40분)

◇고군산군도=고군산군도는 크고 작은 섬들이 울망줄망 모여 있는 아름다운 해상공원이다.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선유도를 중심으로 청정해역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서해바다 최고의 비경은 저마다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대교로 연결돼 있고, 하이킹 코스와 산책로를 찾는 이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장자도와 방축도는 예부터 이름난 고기잡이 어장으로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4. 광역시티투어 군산-서천 코스(매주 토요일 운행)

군산역 출발(10시)-터미널(10시 20분)-근대역사박물관·(구)세관·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부잔교·진포해양테마공원·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서천국립생태원·서천 한산모시관-군산역(오후 5시 10분)-터미널 도착(오후 5시 30분)

◇(구)군산세관=1908년 대한제국 자금으로 건립된 서양식 단층건물로,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다.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 금융기관으로, 은행 관련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잔교=1899년 군산항 개항 후 3000톤급 배 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다리로, 호남평야 쌀들이 일본으로 반출된 통로다.

◇진포해양테마공원은 세계 최초의 합포해전으로 기록되는 진포대첩의 현장으로, 퇴역 군장비 등을 전시한 테마공원이다.

◇서천국립생태원=한반도와 열대, 사

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서천 한산모시관=베를, 모시길쌈 도구, 모시 제품 등이 전시돼 있으며, 모시재기, 모시삼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등의 공정을 선보인다.

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은 근대역사문화가 잘 보존돼 역사교육과 체험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며 "군산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시간여행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신종합건설·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군산 夜行... 행복한 밤

13·14일 근대문화유산거리 걸으며 전시·공연 등 만끽

군산시는 "오는 13일과 14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 자원을 접목한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인 '군산야행(夜行)'을 근대역사박물관 및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밤에 느끼는 지역 문화유산의 7가지 정취 7야(夜)를 주제로 ▲야로(夜路) 밤에 걷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거리 ▲야사(夜史)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花) 한여름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야설(夜說) 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야경(夜景) 밤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야숙(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진행된다.

이런 군산야행은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엔 분포한 다양한 지역 문화재와 연계해 문화유산 거리를 거닐며,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거리 테마공연, 플리마켓,



체험활동 등 4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공군 군악대·의장대 거리퍼레이드와 시립예술단 음악회, 진포대첩 재현행사, 등불거리 점등식, 금강야행 콘서트, 수시탑 야경 불빛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함께 진행된다.

김봉근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군산야행은 수탈과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 문화유산의 정취를 향유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만들 계획"이라며 "군산야행이 군산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